

# 메이저가 되살아나고 있다

金 乾 洽  
(本誌 편집인)

**결프** 전쟁 이후 국제석유시장에서 메이저(국제석유 자본)의 영향력이 되살아나는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메이저는 아직까지 표면적으로는 사태의 추이를 정관하는듯이 보이나, 수면하에서는 사태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끈 美國의 中東에 대한 발언권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메이저의 입김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도 눈여겨 봄직하다. 이번 결프전쟁은 과거 두차례에 걸친 메이저와 OPEC(석유수출국기구)과의 대립을 배경으로 한 中東위기와 전혀 양상이 다르며, 결프전쟁후 진행되는 中東질서의 재편과정에서 美國메이저의 복원에 거는 강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으며,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독자적인 안보론에 근거한 장기전략을 엿볼 수 있다.

1970년대 초 제1차 석유위기가 일어나기전까지만해도 국제석유시장은 메이저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거쳐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메이저는 생존전략으로 ① 사업의 다각화 ② 사업영역의 재구축 ③ 사업의 합병 및 매수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에너지 이외의 체산성이 취약한 부문을 과감히 매각하는등의 구조개편이 전개되었다.

앞으로 메이저는 다시 본래의 업무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원유생산, 수송, 정제, 판매 및 석유화학부문을 포함하는 일련화과정에서 수익성의 극대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저는 이제 원유생산등 상류부문에 서는 과거처럼 산유국에서의 대폭적인 수익증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유가상승에 기대를 걸 것이다. 메이저는 정제시설의 증설에는 별로 흥미가 없으며 세계적

인 무역자유화추세와 환경규제 강화움직임에 따라 중질유분해시설 및 탈황시설등의 시설고도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美國系 메이저는 이번 결프전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세계석유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했다. 메이저는 서서히 원유가격을 상승시켜 수익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다. 그 이유는 3단논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선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치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석유소비국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난 해 8월 이라크와 쿠웨이트로부터의 원유구입을 봉쇄당했다. 이때 OPEC 제2의 산유국인 이란의 산유량에 필적하는 3백만B/D의 증산으로 세계 원유수급균형을 유지시킨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였다.

둘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美國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결프전쟁에서 대규모 군사력을 파견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거의 美國의 힘이었다. 그런데 美國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공화당정권이 석유업계와의 관계가 밀접하다. 과거 美國 남부의 독립계석유회사에서 활약했던 부시대통령은 메이저보다는 독립계 석유회사와의 관계가 더 가깝지만, 메이저의 지위향상은 美國 외교상의 이익과도 합치된다.

셋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해 9월부터 급속히 증산을 단행한 배경에는 아람코가 국유화되기 전에 출자했던 엑슨, 모빌, 셰브론(당시 소칼), 텍사코등 4社の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현재까지도 아람코에는 4社の 기술자가 남아 있으며 생산관리등 주요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람코는 메이저에 큰 빛을

자유세계에서의 메이저 비중(1989)

(단위 : 천배럴)

	원유공급량	정제량	제품판매량
엑슨	1,804( 3.8)	3,299( 7.4)	4,625( 9.0)
모빌	761( 1.6)	1,757( 3.9)	2,595( 5.1)
세브론	1,308( 2.7)	1,893( 4.3)	2,436( 4.8)
텍사코	833( 1.7)	1,356( 3.0)	2,382( 4.7)
美國系 4社計	4,706( 9.8)	8,305( 18.6)	12,038( 23.6)
B P	1,412( 2.9)	1,944( 4.3)	2,663( 5.2)
로얄더치셸	1,851( 3.9)	3,388( 7.6)	4,940( 9.7)
6社計	7,969( 16.6)	13,637( 30.5)	19,641( 38.5)
자유세계計	47,885(100.0)	44,705(100.0)	51,020(100.0)

<註> 괄호안은 자유세계합계에 대한 비율(%)

지고 있어 메이저의 발현권은 그대로 먹혀 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OPEC의 산유량은 2천3백만B/D 수준이며, 또 이란등은 잘 팔리지 않는 重質원유를 유조선에 적재한채 1억배럴을 바다에 띄워 비축하고 있다. 이 물량을 2/4분기중에 수출할 경우 日량은 1백10만배럴에 이른다. 그러나 이때의 對OPEC 수요는 2천1백만배럴 정도에 그쳐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그러나 걸프만안 제국은 전쟁부담금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금등으로 제정이 악화되고 있어 그리 간단하게 감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미 쿠웨이트는 특별산유쿼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고려될수 있는 메이저의 원유 가격 인상책은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은 8백30만B/D 수준으로 산유쿼터에 비해 3백만B/D를 초과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외의 회원국들이 감산하지 않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산유쿼터까지 감산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유국의 석유收入은 가격에 수출량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감산하더라도 유가가 상승하면 收入은 줄지 않기 때문이다.

또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등에 대해서도 다국적군의 주둔압력을 구사한다. 특히 쿠웨이트는 현재 불타고 있는 쿠웨이트유전의 消火와 조업재개에 메이저와 美國기업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美國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란은 쉽게 협력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현재 이상의 증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 이론은 없을 것이다.

지난 3월 11일에 열린 각료감시위원회에서 난항끝에 소폭적인 감산합의에 그친 것은 걸프전쟁 종전후에 원유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여 산유국들이 위기감을 갖고 결속해야 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등 일부 산유국은 감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 감산할 것인가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감산하지 않을 경우 유가하락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유가 인상을 위한 움직임은 활발해질 것이다. 이때 그 이면에서 메이저의 입김이 반드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야흐로 메이저는 국제석유시장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6대메이저의 심벌마크

